



# 정보통신용어 표준화에 관한 일반적 견해

전 진 옥

시스템공학연구소 소프트웨어공학연구부 부장

## 1. 서론

오늘날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를 추구하는 이 시점에서 보면 정보통신 분야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정보통신 서비스가 일상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게 됨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기술발전이 하루 하루 다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수

히 많은 용어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어 오히려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소통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의 전파나 보급, 습득에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비전문가들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신조어나 새로운 용어인데 동일 현상에 대해 저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거나 동일한 용어라 할지라도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른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 당사자 서로간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소모되는 시간적 손실은 매우 크다. 특히 오늘날 새로운 서비스나 시스템 개발

시 다수의 기관이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따라서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용어나 서비스 용어 등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표준화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현재 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 국립기술품질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정보통신용어표준화” 사업은 매우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인 개인의 입장에서 평소 표준화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 2. 국내현황

정보통신분야 용어에 대한 현재 표준 규격으로 제정되어 있거나 관련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활동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개 국제표준화기구인 ISO(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Standards)의 용어를 번역하여 한국공업규격(KS)으로 제정하였거나 관련 기관에서 국책과제로 수행하였거나 기업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정리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 ● 한국공업규격 (KS)

규격번호/년도	규격명	비고
KSC 5602-87	정보처리용어: 기본 용어	ISO 2382-1
KSC 5811-87	정보처리용어: 산출 연산 및 논리 연산	ISO 2382-2
KSC 5812-90	정보처리용어: 장치 기술	ISO 2382-3
KSC 5813-88	정보처리용어: 데이터 구성	ISO 2382-4
KSC 5814-88	정보처리용어: 데이터 표현	ISO 2382-5
KSC 5815-90	정보처리용어: 데이터 준비 및 취급	ISO 2382-6
KSC 5816-88	정보처리용어: (프로그래밍)	ISO 2382-7
KSC 5817-90	정보처리용어: 규제, 완전성 및 안전 보호	ISO 2382-8
KSC 5818-88	정보처리용어: (데이터 통신)	ISO 2382-9
KSC 5819-88	정보처리용어: (운영 기법 및 기능)	ISO 2382-10
KSC 5820-90	정보처리용어: 제어 장치, 입출력 장치 및 연산 장치	ISO 2382-11

KSC 5822-88	정보처리용어: 도형 처리	ISO 2382-13
KSC 5823-88	정보처리용어: (신뢰도, 유지 보수 및 이용도)	ISO 2382-14
KSC 5824-88	정보처리용어: (프로그램 언어)	ISO 2382-15
KSC 5825-88	정보처리용어: (정보이론)	ISO 2382-16
KSC 5828-90	정보처리용어: (아나로그 계산)	ISO 2382-19
KSC 5830-90	정보처리용어: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ISO 2382-20

### ● 한국통신기술협회(TTA) 발간 정보통신용어 사전

- 15,000 용어 수록
- 18개 전문분야로 구분  
관리운용, 기초, 데이터 통신, 방송, 위성통신, 전신, 광통신, 단말기기, 무선, 선로, 전송, 전원, 전파, 컴퓨터, 통신서비스, 전화교환, 통신망, 화상통신

### ● 문화체육부의 전산기 용어 순화집

- 1,700여 단어 수록

### ● 시스템공학연구소의 소프트웨어 공학 용어 표준화

-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 484 용어 정리

### ● 정보산업표준원의 소프트웨어 공학 용어 표준화

-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 517 용어 정리  
(시스템공학연구소의 소프트웨어 공학 용어 연구 포함)

### ● 쌍용이동통신사업부 발간 정보통신용어사전

- 용어 정의문은 없으며 영/한대역만 있음.

## 3. 문제점

현재까지의 국내 현황을 토대로 하여 본인이 느끼고 있는 용어 표준화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화 활동에 대한 사항으로는

- 정보통신,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용어들의 표준화 노력이 담당 기관별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 전문성으로 인해 충분히 이해되나 기관별 표준화 활동간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기관별 표준화에 대한 취지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
- 이러한 상호 협력의 부재로 관련 용어들간의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표준화 노력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 또한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사한 다수의 표준이나 참조 문헌으로 인해 참조상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어느 표준이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생활 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으로는

-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통신, 컴퓨터 분야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분야였지만 지금은 일반 비전문가들도 생활속에서 직접 체험하게 되어 일상 용어화 됨으로 인해 올바른 용어 사용으로 정확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용어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표준화 노력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용어뿐만 아니라 보다 일상 생활속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도 표준 용어로 선정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표준화 시점에서 보면

- 올바른 용어 사용은 대개 적시성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관련 기술의 현황 및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용어가 정의되거나 기존 용어의 계속적인 의미 보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 현황을 보면 관련 기술이 성숙되어 보편화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용어 표준 작업이 이루어 지는 것 같아 다소 시기적으로 뒤지는 경우가 있고
- 제정-개정-사용-폐기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의미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일단 제정후 개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정 작업 역시 관련 기술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정의되는 용어의 내용면에서 보면

- 현재 용어 표준이 용어에 대한 일차원적인 번역이나 단편적인 해설로 이루어져 있어 전문가가 아니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역설적으로 전문가라면 의미 이해를 위해 용어집을 참조하지 않을 것이다). 가능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하며(전문가라면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 대부분 정의되어 있는 용어 표준은 해당 용어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지만 관련된 용어와 관련지어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비슷한 용어를 추가시켜 설명
  - 보충되는 용어에 의한 설명 등

다섯째, 추진체계 상에서 보면,

- 현재 6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부문별 전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연구의 전문성을 기한다는 면에서 좋은 일이나 분과별로 그 영역이나 경계가 분명한 것인지는 다소 의문스러우며(정보통신 분야 분류 문제)
-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대상 용어에 대한 기준(긴급성, 포괄성, 범용성 등)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4. 전망

정보통신용어 표준화 사업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용어 표준이 미치는 기대효과나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영역이나 경계를 분명히 해 줌으로써 관련 당사자가

리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게 하고 기술 정보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활용성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며

- 정보통신분야 용어는 전문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일상생활 영역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최신 용어들이 시기 적절하게 정리되어 일상생활 속에 활용된다면 관련 기술에 대한 많은 관심을 유도하게 되어 관련 기술의 저변 확대는 물론 주요 기술의 조기 보급이라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고
- 정확한 용어 정의는 정확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애매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계약 사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앨 수 있으며
- 용어뿐 아니라 기호, 도형 및 코드 등의 표준은 시스템이나 신규 서비스의 개발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 관련 도서의 번역이나 출판에 사용토록 권고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5. 해결방안

앞서 언급한 제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용어 표준화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용어 표준화 작업이 부처별로 다른 목적, 시각에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software”를 국내 표준 용어로서 어느 부처에서

는 “무른모”라 칭하고 타 부처에서는 “소프트웨어”라 칭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여하튼 대표성 이름이 주어져야 한다. 원래 말의 어세(語勢)라 하는 것은 얼마나 보편성을 가지고 사용되는가에 대한 문제이므로 현재 얼마나 널리 통용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분명한 경계나 영역을 구분하여 부문별 용어를 표준화하고 전체 집합으로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각 분과의 구성 및 역할이 정해져야 한다.

셋째, 분과위원회간의 인터페이스가 매우 긴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각 분과에서의 작업 방법, 대상용어 선정 방법, 용어 정의 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준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상용어의 완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 일단 정의된 표준 용어를 각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겠지만 국내 표준의 제·개정 전담 기구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천고의 노력 끝에 정의된 표준 용어들이 기관 내에서만 통용된다면 그 효용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특히 일반 사용자들이 참조시 공신력을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섯째, 표준 활동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유사 표준이 각 기관별로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상 일반 사용자들은 이러한 표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널리 통용됨을 목표로 하는

표준화의 기본적인 취지에 위배된다. 대 국민 홍보를 통해서 오히려 신기술의 보급 효과도 가질 수 있고 표준화 노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인터넷 등에 홈 페이지를 개설하고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조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는 표준 용어의 선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용어 표준의 제정 및 개정 작업시 시기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급속히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 들기 때문에 표준화의 효과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제정, 개정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일곱째, 용어 정의는 일반적인 해설이나 대략적인 설명과는 그 특성상 매우 다르다. 용어 정

의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의미 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정교하게 정의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이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연구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이에 따른 예산의 배정이다. 새로운 연구에 대한 연구에는 많은 비용이 할당되는데 반해 표준화 작업은 그저 번역 정도만 해 놓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표준화 작업은 다수의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하며 경쟁과 협력이 조화되어 끈기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일회성의 작업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의 진보에 맞출 수가 없고 장기 계획하에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필수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